

승대극회 제22회 신입생환영공연

아폴로·결혼

원 작 장 지로두·이강백
기 획 강길호·안병진
연 출 류민주

일시 1998년 6월 4~5일 늦은 6시 / 6일 늦은 1시·5시

장소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제1공학관 2층)

주최 숭실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승대극회 정기공연연보 1921 - 1998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921년 6.13	연홍회소인극 "절세영웅 나쁜레옹의 망토" 대비극 노예의 탑		
	1923년 7.7. 21	선원극 "우리의 행진" "동백꽃" "십년 후" "기제인간" 협연창년회 주관		
	1923년 7.28, 29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1	1965년 11. 11.	"개궁으로 돌아오다" 황영식 작	이 반	전진호
2	1968년 10.28	"Our Town" by Thom Wilder	이태주	
3	1969년 10.10	"외자들" E. 이오네스코 작	이태주	
4	1969년 10.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5	1970년 5.15	"밀링顿의 캠블"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6	1970년 10.28, 29	"승부의終末" 사무엘 베카트 작	김양기	
7	1971년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제작 기획 조작	5.26, 27, 28, 31 6.1, 2	"건널목 살희" 유효병 작 "답례해독에 뛰하여" 안준 제작 "황금단지"(로마극) 투라우더스작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카트작	주정서 한영재 유근배 차현재	
8	1974년 11.4. 5. 11	"자객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9	1972년 5.21, 22, 23	"생일파티" H. 펀터 작	한영재	
10	1973년 5.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작	고보인	
11	1973년 10.25, 26, 27	"방" H. 펀터 작 "기도"(소극장) F. 아라발 작	김득남 차현재	
12	1974년 5.25, 28, 30	"정의의 사람들"(전5막) A. 까뮈작	정종화	
13	1975년 6.9. 10. 12, 13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의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안홍순	
14	1975년 10.29, 30, 31	"비더반과 망화암" by Max Fish	김기열 안홍순	
15	1976년 6.1, 2, 3	"인터넷" 장 카로드 밴 이델리 작	김기남 김득남	
16	1976년 10.25, 26, 27, 28	"쌈" 장 카로드 밴 이델리 작	김영덕	
17	1977년 6.15, 16, 17, 18	"EQUUS" 퍼터 쉐터 작	백정식 김영덕	
18	1977년 10.10.11, 12, 13	"EQUUS" 퍼터 쉐터 작	방영철 김영덕	
19	1978년 6.5, 6	"COUNTER POINT" bv Olov Hartman 작	방영철 김영덕	
20	1978년 10.24	"EQUUS" (대학연극 연극제 참가) 퍼터 쉐터 작	민승기 김영덕	
21	1979년 6.18, 19	"한강 2079" 김영덕 작	정제호 이병국	
22	1979년 9.29, 10.2	"초본" 오대식 작	이정일 황경순	
23	1980년 11.5. 6	"아니, 이 생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엄세범 박영권	
24	1981년 6.12, 13	"노부히의 방문" F. 뒤렌마트 작	이종규 황경순	
25	1981년 11.12, 13, 14	"꽃맞이꽃" 김병종 작	전석근 황경순	
26	1982년 5.12, 13	"파리규라" A. 까뮈 작	유대웅 지숙	

모시는 7



극회장 이경희(컴퓨터96)

세상은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한다구요? 세상은 아름다움만 존재해야 한다구요? 맞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연극은 공연을 올리

는 동시에 사라져 버리고 추억으로밖에 남질 않는 바람과 같다라고요. 몇 번의 작업은 이미 바

람처럼 사라졌고 또 한번의 작업이 끝나고...

이번에 승대극회 새 식구가 된 '98학번 아이들과 사랑스러운 '97학번 아이들 그리고 선배들...

때론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연극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배우들과의 눈빛만으로도 다 느낄 수 있는

시간되셨으면 합니다. 공연을 준비한 승대극회 여러분, 이 연극을 관람하려 오신 아름다운 관객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한마디 남깁니다.

"축하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저 살기도 쉽지 않은데..."

회	공연일자	작품명	기획	연출
27	1982년 10.7, 8	"쉐도우 박스" M. 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황경순
28	1983년 6.20, 21	"미시시피씨의 결혼" F. 뒤렌마트 작	전희식	김영덕
29	1983년 10.7, 8	"드레버" by John Bowne	이원우	오정열
30	1984년 5.24, 25, 26	"도가니" (The Crucible) by A. Miller	이종규 엄세범	오세환
31	1984년 10.11, 12, 13	"벤전소" by John Stolenberg	차세훈	이용섭
32	1985년 5.9, 10, 11	"빈민굴" by Maxim Gorky	김상현	이용섭
33	1985년 11.21, 22, 23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조반니노 파레스키 작	하승민	송기범
34	1986년 6.4, 5, 6	"EQUUS" 퍼터 쉐터 작	허성무	하승민
35	1986년 9.11, 12, 13	"코풀소" E. 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송기범
36	1987년 6.3, 4, 5	"한여름밤의 꿈" by W. Shakespear	권형진 이준식	오정열
37	1987년 9.10, 11, 12	"오해" A. 까뮈 작	오정열	박경근
38	1988년 6.2, 3, 4	"세면은 끊게 세면은 걸게" 이어령 작	이충일	오정열
39	1988년 10.6, 7, 8	"안내놔? 못내놔!" by Dario Fo	권태수	송근호
40	1989년 5.25, 26, 27	"농녀" 유효병 작	천승범	안선후
41	1989년 10.10, 17, 18	"대성당의 삶인" by T.S.Eliot	오정열	이 반
42	1990년 5. 24, 25, 26	"안티고네" 장 아누이 작	권태수	이준식
43	1990년 8.30, 31, 32	"한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이열민
44	1991년 5.30, 31, 6.1	"생일파티" H. 펀터 작	남제우	권승해
45	1991년 9.5, 6, 7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권형진
46	1992년 3.19, 20, 21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작	임경화 정원용	홍은영
47	1992년 9.17, 18, 19	"금관이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송근호
48	1993년 5.20, 21, 22	"세일즈맨의 죽음" by A. Miller	황명식	박원상
49	1993년 10.21, 22, 23	"택시, 택시" 김삼수 작	소장호 이명성	박원상
50	1994년 5.26, 27, 28	"굿 닉터" 님 사이먼 작	정석용	소장호
51	1994년 9.29, 30, 10.1	"안티고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박원상
52	1995년 5.25, 26, 27	"상자속의 여자" 김율미 작	천승범	류성환
53	1995년 10.12, 13, 14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남제우
54	1996년 3.7, 8, 9	"자살" 갑현복 작	한석용	손미라
55	1996년 9.5, 6, 7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윌리엄즈 작	조태희	이종희
56	1997년 3.13, 14, 15	"우리읍내" 손문 와일더 작	신하영	시수경
57	1998년 3.26, 27, 28	"삼인놀이" by E. 이오네스코*	조태희 권내리	이정미



무대감독 한석윤(기계91) 무대장치 조태희(섬유92)



무대미술 김형근(국문92) 홍보 양명호(법학93)



설외류성환(건축93) 일러스트 박정극(법학93)



소품 이정원(국문93) 진행 박시현(법학94)



분장 이정미(섬유95) 분장 신하영(건축95)



의상 권내리(불문95) 진행 양진(일본96)



진행 유동용(섬유97) 진행 이세훈(전기97)



음향 박지희(전화95) 조명 오민석(전자97)

기획의 변

◀ STAFF



기획 안병신(전자97)

나는 또 이번 공연이 끝난다는 아쉬움과 공허감에 걱정이 된다. 함께 꾀땀흘리며 준비해 온 극회인들 또한 아쉬워한다. 그 공허감, 아쉬움이 두렵다. 하지만 공연은 또 있는 법. 그것만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어찌면 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

극회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강길호(무역97) 것 같아서 자꾸만 자꾸만 행복해진다.

잘 해야지, 잘 해야지 생각했는데...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생각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마지막으로 극회인들에게 감사하고 숭대극회에게도 감사한다.



애그네스 유선영(영문97)

속신이
흐느적 흐느적
하도록
피로했을때만
정신이
온화(銀貨)처럼
맑소



사내 김영길(정전98)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나는 건
“빠싸하자”
... and “F”
으흐흐



서기/하인 문창현(경동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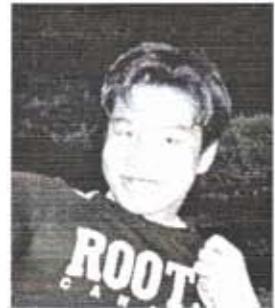
공연이 끝나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이다.
반드시
느껴야 한다.



부사장 김태욱(전기98)

1. 조명이 타고, 살
꽃이 타고, 가슴
이 타고...

2. 난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사장 강대인(산공98)

힘들고, 지쳤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페레즈 백종혜(국문98)

나는...
크고 있는건가?
배우고 있는걸까?



회장 오신택(경동98)

화려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시간은
가고 있다...

연출의 변

CAST



연출류민주(국문94)

세상은 나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어루러져 가는 것이 세

상인 것입니다. 불신과 이기심은 외로움을 낳고, 결국은 지독한 고독 속으로 몰고 갑니다.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 서로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손을 내밀기가 어색

하지 않은 세상,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진정 아름답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 난... 행복합니다.



여자 슈브레당 이경희(컴퓨터96)



남자 강길호(무역97)

LET'S L-O-V-E !

연극읽기

CAST가 보는 「아폴로」 그리고, 「결혼」

아폴로...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혼탁한 삶에 찌들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잊었다. 신, 요정, 아니면 우리를 마음 속에 존재할지 모르는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 사내는 이런 것들로 인해 탄생된 인물일 수도 있다. 사내는 자기가 존재해야 할 본래 목적에 맞게 에그네스를 통해 세상 사람들 이 잊고 있었던, 어쩌면 한번도 느껴보지 못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이 아름다움에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 이 아니다. 그저 생각의 차이다. 미의 신인 아폴로를 통해 자신이 없던 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모순된 사람들의 모습들... 그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자'

결혼... 빌리고 되돌려 주는 행위에서, 지금 순간 순간의 소중함과 삶과 소중함을 깨워준다. 거기에 도구로써 사랑을 도구로 쓰고 있다.

〈결혼〉은 요즘 결혼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외모와 경제적 배경등이 배우자 선정기준이 되어 버린지는 이미 오래전 얘기다. 이런 사회현상이 바뀌길 바라며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빌린 인생, 뎀 인생. 두 남녀는 서로의 인생관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외로움을 채우는 장면을 기준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의 인생관과 철학에 초점을 맞추어본다.

작품분석

「아폴로」「결혼」의 작가와 작품에 관하여

「아폴로」 - 장 지로두 作

1. 장 지로두(Jean Giraudoux, 1882-1944)는 장 아누이와 함께 불란서의 대표적인 현대 극작가로서 지성적인 풍자 극작가로 알려져 있으나 동시에 신화와 전설을 교묘하게 가지고 들어와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작품을 쓰기도 했다. 〈트로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1935), 〈эм피트리온 '38〉(1929), 〈온단〉(1939), 〈샤이오의 왕녀〉(1945) 등이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2. 〈아폴로〉(원제, Apollp de Belac)는 비록 단막이지만 그의 극작가적 재옹을 십분 드러내 보여 준다. 이 작품은 매우 정감에 넘친 환상적 풍자극, 우의적인 회곡이라 할 수 있다. 한 평범한 처녀가 대기업체의 사무실에 나타나 취직 의회를 하지만 늙은 접수계원으로부터도 냉랭한 대접을 받는다. 이 때 환상적인 인물인 신화 속의 아폴로가 나타나서 이 처녀에게 사람들을 사로잡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 그가 가르쳐 주는 비결이란 지극히 단순하다. 만나는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당신은 아름답다'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아름답다거나 추하다는 것은 실상 인간이 만들어 낸 관념이므로 이왕이면 똑같은 현실을 아름답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낫겠다는 역설적 풍자를 작가는 의도하고 있다.

「결혼」 - 이강백 作

1. 이강백은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다섯〉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작품을 쓰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내마〉 〈미술관에서의 혼돈과 정리〉 〈개뿔〉 〈쥬라기의 사람들〉 〈봄날〉 〈호모 세파라투스〉 등 여러 회곡들을 발표했다. 서울극평가그룹상, 동아 연극상, 대한민국 문학상, 서울연극제 회곡상, 백상 예술대상 회곡상 등을 수상했다.

2. 사람은 누구나 젊은 시기에 외로워하고 사랑을 필요로 한다. 이런 지극히 일반적인 원리대로 살고 있는 한 남자가 맞선을 보게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시작하게 된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 최상의 조건을 만든다. 그래서 가상의 주인에게 시간제약이 있는 물건을 빌려 조건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자에게 청혼을 하지만, 결국에 남자는 여자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을 꾸몄던 벌린 것들을 통해 인생 또한 벌려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여자는 '덤' 자신의 얘기를 이해해주는 남자를 통해 사랑을 느낀다.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벌려쓰고 벌려쓰는 동안에는 아끼고 사랑하며 소중하게 다루다가 그때가 다하는 날 자연의 섭리대로 되돌려준다는 진리를 깨닫고 사랑의 완성인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극은 끝난다.

연습일지

우리가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에...

4/15 임시회의... 공연결정

4/16 연극사조 study... 흐름을 확실히 알자

4/18 원상선배 '마술가게' 관람

4/28 Casting...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4/29 첫 연습날. 모두들 열중하지만, ... 정말 우습다. 많이 다듬어져야 할텐데.

4/30 개인 연습이 많았다. 트레이닝이 힘들다

5/2-3 강화도 MT

5/3 하나둘씩 사정이 생겨 오지 않는다. 모두들 기획형들 눈치보느라 시간은 훌쩍,
연출님이 예민해지셨다.

5/4 대본수정 [부주의를 결혼으로]

5/5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아닌 우리들은 힘든 트레이닝을 거치고 '아풀로'를 갔다.

5/15 스승의 날. 감정이 잡히지 않는다... '이반' 교수님을 찾아뵙다
'연극들만 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해라...'

5/20 의상, 소품,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만사가 편하다.

5/24 SETTING 날이다. 조금 늦었지만, 2시부터 9시 30분까지의 긴 작업시간. 힘들었다. 잠만 온다.
... 다들 피곤하다.

5/26 기분이 들뜬다. 대사도 술술... 그러나 감정은 여전. 어~ 이러면 안되는데.

5/28 새로운 98 선택이의 등장. 두달 선배로써 어깨가 들썩하다.

5/31 원상 선배님의 결혼식.

6/1-3 리허설 시작. 연습을 실전처럼... 빠샤~

6/4 드디어 공연이다~ 한달간의 짧지만, 그러나 걸코 수월하지 않았던 날들... 이제 나를 보여주련다!

승대극회 신입생환영공연연보 1975 - 1998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	1975년 3.10, 11, 12	"악마와 봄" W. Aning 作		김홍수
2	1976년 10.29, 30, 31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김득남
3	1977년 3.16, 17, 18	"술밤" 윤대성 作	전경호	안홍순
4	1979년 3.29, 30	"셋" 이강백 作	한 철	정재호
5	1981년 3.30, 31	"ARIA DA CAPO" E.St. V. Millay 作	이영환	오세환
6	1982년 3.24, 25	"인ぐ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作	최시영	이용섭
7	1983년 4.16	"글 앤 코메디" 피터 웨버 作	전희식	홍여식
8	1984년 3.8, 9	"개인의 소공간" N.Horald 作	차세훈	김인보
9	1985년 7.20	"ARIA DA CAPO" E.St. V. Millay 作	이영민	하승민
10	1986년 3.17, 18, 19	"인형의 집" 센리 일센 作	이길영	김정운
				워성선

회	공연일시	작품명	기획	연출
11	1987년 3.12, 13, 14	"더러운 손" J.P. 샤르트로 作	백윤현	박경근
12	1988년 3.24, 25, 26	"불가불가" 이현화 作	천승범	황금실
13	1989년 3.23, 24, 25	"혹인수녀를 위한 전혼곡" A.Camus 作	홍덕태	박경근
14	1990년 3.8, 9, 10	"우울증 환자" Botoh Strauß 作	이영민	박혜숙 안상준 백로라
15	1991년 3.7, 8, 9	"노크노크" 줄스파이퍼 作	정현용	이범준
16	1992년 5.28, 29, 30	"끙끙고 물마시고" 이근삼 作	김상겸	양현준
17	1993년 3.11, 12, 13	"매두사" George Kaiser 作	소장호	박원상
18	1994년 3.10, 11, 12	"어린왕자" 생엑쥐베리 作	이명성	홍석환
19	1995년 3.9, 10, 11	"봄남" 이강백 作	양명호	정석용
20	1996년 5.30, 31~6.1	"웅어라 뱃고동아" 성준기 作	정재훈	김형근
21	1997년 5.29, 30, 31	"로물루스 대제" F. 뒤파마트 作	박정극	정석용

승대극회 제 22회 신입생 환영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후배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승실대학교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오돌뼈의 참맛

지희네집

다양한 메뉴와 서비스

허수아비

자매분식

강남시장

대길스낵

어머니

오렌지데이

홍부네집

822-7045

#9 DREAM

스타일리스트

812-1097

꽤 괜찮은 쉼터
파라다이스

연래춘

816-2007

팔려! 팔려!

박평화헤어스테이션

제본.복사.문구 10% DC

현대문화사

812-8557

우리의 영원한 친구

酒酒을립

삼영탕구장

한잔해~

맥주나라

팔빙수 먹으려 가자

거스 821-0566

아뜨리에

자마이카

817-8665

세원김밥

817-1364

B&K

강연이가 만드는 팽집

812-8400

출 출 할 때

서울김밥

814-6999

상도곱창

821-3802

진흥인쇄랜드

812-3694

신속배달!

청풍원

819-7188

인터넷과 커피를 한번에

LANPC방

814-9245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큐피드

812-4360

목포슈퍼

'97학번의 아저트

교과교재